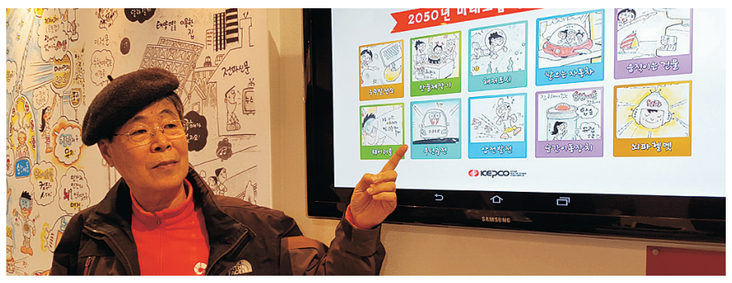
"35년후엔 순간이동하고 車가 날아다니는 세상 오겠죠?"

1965년 '2000년…' 그린 이정문 화백, 이번엔 '2050년 想像'

광주 '빅스포 2015' 전시 화제
50년전 그린 DMB폰 등 현실로
우주발전소·뇌파헬멧 등 눈길



"35년 후에는 사람이 걸어가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고 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식재료만 넣으면 음식이 조리되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죠. 만화가의 상상력으로 2050년의 세상을 그려봤습니다."

한전이 주최한 세계 최초 전력분야 엑스포인 '빅스포 2015'가 개막한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한쪽에서는 이정문(73·사진) 화백이 자신이 그린 '2015년에 2050년을 상상하며'라는 제목의 그림을 관람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종이 그림에는 달라질 생활상 10가지를 한데 모아 그렸고, 그 옆 컴퓨터에는 그 10가지를 스크린 터치 방식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화백은 중·장년층들에 익숙한 '심술통' '철인 캉타우' 등을 그린 원로 만화가다. 그는 특히 지난 1965년에 '2000년을 상상하며'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태양열주택, 전기자동차, DMB 스마트폰, 원격 교육, 움직이는 도로(에스컬레이터) 등 대부분 내용이 현실화됐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군인들이 서로 무전을 하는 것을 보고 언젠가는 어떤 기구를 통해 개인끼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는 것을 보면서 태양열 활용을 상상했으며, 전차의 무한궤도를 보면서 움직이는 도로를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이 화백이 이번에 그린 '2050년을 상상하며' 그림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그의 상상력과 예지력이 50년 전에 검증됐기 때문인 듯하다. 그가 그려낸 10가지 생활상은 우주발전소, 만물제작기, 해저도시, 나는 자동차, 움직이는 건물, 웨어러블 컴퓨터, 무선 충전, 압전 충전, 순간이동장치, 뇌파 헬멧 등이다.

그는 압전 충전에 대해 "신발 또는 인도에 전기발생장치를 부착하면 사람의 보행으로 전기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발전소에 대해서는 "달 표면에 건설한 태양전지판에서 생산된 전기를 위성을 통해 무선으로 지구에 보내는 상황을 상상해 봤다"고 했다. 뇌파 헬멧은 뇌파를 이용해 조리기구에 전원을 켜고 로봇청소기를 움직일 수 있는 기구라고 한다.

이 화백은 "전기자동차를 무선으로 충전하고 옷처럼 입는 컴퓨터를 통해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시대도 예견된다"고 덧붙였다.

이 화백은 빅스포가 끝나는 14일까지 행사장에 머물면서 관람객들에게 친필 사인을 해줄 계획이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홍익인간, 통일이념 토대… 民주도 풀뿌리운동돼야"

'통일운동가' 변신한 문현진 GPF 세계의장

"비전없던 햇볕정책은 실패
국민합의 않고 北만 이익"

문현진(45·사진) 글로벌피스재단(GPF) 세계의장은 한때 통일교의 유력한 후계자였지만 지금은 세계평화운동가이자 한반도 통일운동가로 뛰고 있다. GPF가 중심이 돼 결성된 '통일을 실천하는사람들'에는 무려 700여 곳의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GPF가 지난 8일과 9일 잇달아 주최한 한반도통일국제전문가포럼과 통일경제포럼, 2015통일실천지도자대회 등에는 시민과 전문가, 정·관계 인사 수천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시애틀에서 이번 대회를 위해 서울을 방문한 문 의장을 11일 만났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진보 성향을 망라한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로 하여금 통일문제에 진지하게 임하게 하기 위한 첫 시도일 것입니다." 문 의장은 통일운동에서의 '민(民) 주도'를 강조했다. 문 의장은 "확실히 시민운동이 열쇠"라면서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먼저 시민사회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가 나서면 정부도 움직이고 결국 진보·보수 양 진영의 정치인들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통일운동에 앞서 통일철학을 정립하고 통일논의의 프레임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방과 더불어 냉전 프레임이 한국에 강요됐고 그 속에서 한국인들은 70년 이상 자신을 가둬 왔다"면서 '냉전사고로부터의 탈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 의장의 통일론은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과 접목하는 과정에서 정점을 이룬다. 문 의장은 "서양에서는 근대에 이르러 인권이라는 보편적 이상을 받아들였지만 한국 문명은 이미 5000년 전 건국설화에서 천부인권이라는 숭고한 이념을 갖고 있었다"면서 "냉전이 아닌 홍익인간이 통일논의의 이념적 토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운동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문 의장은 성과에 대한 '비전'과 '국민적 합의'를 꼽았다. 그러면서 실패한 통일운동 사례로 햇볕정책을 들었다. "종합적인 비전과 국민적 합의가 없었고 그 결과 민관 모두 북한에 대한 단편적인 참여전략으로 일관해 북쪽의 이익만 극대화했다"는 게 문 의장의 판단이다. 그는 "어떤 운동이든 사회 구성원들이 주인이 돼야 하며 통일운동은 더욱 그렇다"면서 "한 사람이 꾸는 꿈은 단순한 꿈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같은 꿈을 꾼다면 그 꿈은 실현될 것"이라고 힘을 주었다. 문 의장은 미 컬럼비아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하버드대에서 MBA를 마쳤다. 한때 통일교 황태자로도 불렸지만 2012년 아버지인 문선명 총재의 별세 직후 통일교권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지난 8일 서울에서 개최된 통일실천지도자대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설자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이재수 대표 등 10명

지난 2002년 제정돼 매달 뛰어난 업적을 쌓은 엔지니어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시상식이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문화일보·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한국경제신문·YTN이 공동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이재수 골드텔 대표이사, 송성배 LG전자 연구위원, 이길순 에어비타 대표이사, 장은주 삼성전자 마스터 등 10명이 수상했다. 이 자리에는 이석준(사진 뒷줄 왼쪽 세 번째) 미래부 1차관과 이용식(〃 오른쪽 두 번째) 문화일보 논설실장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훈 기자 dhk@

"24년째 수요집회 하는 현실 안타깝죠"

내일 1200차 집회 앞둔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

"24년 전 임시로 만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건 무척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로 하루 빨리 수요집회를 마무리 짓고 협의체가 해체되길 바랄 뿐입니다."

1200차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를 하루 앞둔 13일 윤미향(사진) 정대협 상임대표는 "정대협은 20여 년 전 시민단체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임시 협의체인데 이제는 그 어느 단체보다 오래된 상설기구가 돼 버렸다"면서 "일본 정부를 향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 섞인 절규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일본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2년 첫 정기 수요집회 때부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동고동락해온 윤 대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각계의 연대가 확대되고 할머니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을 가장 긍정적인 변화로 꼽았다.

그는 "수요 집회를 처음 시작한 1990년대만 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왜 드러내려 하냐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많았다"면서 "지금은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수요집회에 나와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비록 우리의 1차 변화 대상인 일본 정부의 태도는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만큼은 지난 20여 년 동안 긍정적인 변화를 거듭해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겉으로만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할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1200차 정기 수요집회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사회를 보고 김복동 할머니가 발언대에 직접 올라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등 특별하게 꾸려진다.

또 이날 참가자들은 그동안 수요집회에 참석했던 할머니들의 사진을 들고 집회에 참석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두 집회에 참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강승현 기자 byhuman@

"불평등도 경제성장에 도움된다"

올 노벨경제학상 디턴 교수
피케티 '21세기 자본' 반기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앵거스 디턴(69·사진)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디턴 교수는 자본주의가 경제 성장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불평등의 부정적 기능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해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 디턴 교수의 소비, 빈곤, 복지에 대한 분석을 기려 그를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영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디턴 교수는 1945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나 케임브리지대에서 '소비자 수요 모델과 영국으로의 적용'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브리스톨대 교수를 거쳐 현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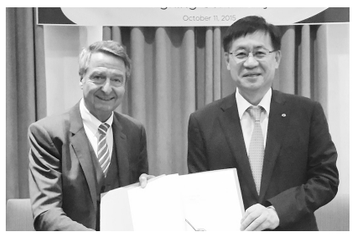
디턴 교수가 처음 학계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영국 브리스톨대 재직 당시 존 무엘바워 옥스퍼드대 교수와 함께 수요 측정방식인 '준(準)이상 수요 체계'(AIDS)를 고안하면서부터다. 준이상 수요 체계는 그 뒤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 전 세계 학자들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수요 분석 틀로 자리잡았다. 특히 그는 2013년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을 출간하면서 경제학계에 불평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자, 그 반대편에서 불평등의 부정적 기능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그는 저서 '위대한 탈출'을 통해 불평등이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

'고바우 만화상' 윤승운 화백

'고바우' 김성환 화백의 업적을 기려 제정된 '고바우 만화상' 올해의 수상자로 '맹꽁이서당'을 그린 윤승운(72·사진) 화백이 선정됐다. 윤 화백은 1970~1980년대 어깨동무와 소년중앙, 보물섬 등 청소년 잡지에 '꼴찌와 한심이' 등을 연재해 인기를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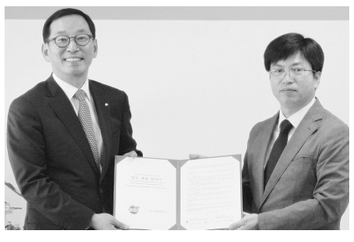
박정욱 인삼공사 사장 선임

KGC인삼공사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박정욱(사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1989년 KT&G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입사해 KT&G 마케팅 본부장, KGC인삼공사 국내사업부문장(부사장)을 역임했다.



독일재건은행과 통일금융 협약

홍기택(오른쪽) 산업은행장이 11일 페루 리마에서 울리히 슈뢰더 KfW(독일재건은행) 회장과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통일금융 노하우를 전수받기로 했다. 산업은행 제공



키즈 사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신성훈(왼쪽) KB국민카드 마케팅본부장이 12일 경기 부천시 ㈜손오공 사옥에서 김종완 대표와 '키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KB국민카드 제공

대학문화연합회에 6000만 원 전달

임삼진(오른쪽) 롯데홈쇼핑 CSR동반성장위원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대학문화연합회에서 구자영 회장에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나눔릴레이'를 통해 모은 기부금 6000여 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제공

전화 02-3701-5305 팩스 02-3701-5296 e메일 opinion@munhwa.com

백화종 국민일보 논설고문 별세

백화종 국민일보 논설고문이 12일 별세했다. 66세. 고인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 중앙고와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양통신과 연합통신을 거쳐 1988년 국민일보로 옮겨 편집국장, 논설실장, 편집인, 주필, 부사장을 지냈다. 제3대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유족은 부인 김신남 씨와 아들 원경(KT 미디어사업본부 대리), 딸 혜진(구리원진녹색병원 과장), 사위 전우주(본브릿지병원장) 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5시. 02-3410-6912

'詩壇 대모' 홍윤숙 시인 별세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홍윤숙 시인이 12일 오전 서울 자택에서 별세했다. 90세. 고인은 1947년 문예신보에 '가을'을 발표하면서 등단했고 '쓸쓸함을 위하여' 등 시집을 남겼다. 한국시인협회장 등을 지내며 한국 시단의 '대모'로 불렸다. 유족으로는 아들 양윤 이화여대 교수, 딸 양지혜 전 오하이오 오토바인대 교수·화가 주혜 씨, 사위 사업가 박재희 씨·지미 라스만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김화영 고려대 명예교수, 며느리 배정혜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14일 오전 9시. 02-3410-6902

공영일 경희학원 이사장 선임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공영일(사진) 이사를 이사장으로, 조여원 이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공 이사장은 경희대 총장, 한국영어교육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조 상임이사는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장을 지냈다. 임기가 만료된 김용철(전 대법원장) 이사장은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됐다.

11년만에 한·일교회協 협의회

김영주(사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는 쇼코 아미나카 일본교회협의회(NCCJ) 총무와 15~17일 서울 기독교회관과 동숭교회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 :일본과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협의회를 개최한다. 두 단체의 공동협의회는 11년 만의 일이다.

현대건설 연구원4명 '마르퀴즈…' 등재

현대건설은 12일 연구개발본부 지성현(왼쪽)·김영오 부장, 서태석(가운데) 과장, 문병욱(오른쪽) 대리 등 연구원 4명이 한꺼번에 세계 3대 인명사전의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2016'에 등재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제공

한헌수 총장 '청년희망펀드' 가입

한헌수(가운데) 숭실대 총장이 12일 서울 동작구 우리은행 숭실대지점을 방문해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고 오생균(왼쪽) 우리은행 숭실대지점장, 김선규 우리은행 관악동작영업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숭실대 제공

부고

△윤순희씨 별세, 최준석씨 부인상, 최영목씨·윤목전대법원행정실장·선목한화그룹경영기획실부사장·경목전IBM상무·명자·영숙·은미·경미씨 모친상, 곽길성전주택은행지점장, 박홍규전국정원근무, 이범인사업 장모상=12일 11시 유성선병원. 발인 14일 8시 042-825-9494

△홍복순씨 별세, 김기영소셜홀딩스감사·혜영씨 모친상, 전승환전인삼공사고문 장모상, 김행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시모상, 김지수포스코P&S대리 조모상=12일 11시 5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14일 9시 02-2227-7580

△김상위전해군대령 별세, 김우성메리츠종금증권차장 부친상, 이종남전선물협회 회장·강원삼일산실업대표이사 장인상=12일 16시5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5시30분 02-3410-6905

△김영선서울시중구의회구의원 별세, 이애정씨 남편상, 김진윤대건피혁주임 부친상=12일 10시42분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14일 7시30분 02-2262-4823

△김오성씨 별세, 최종석전한국투자공사사장 부인상, 최경침·은침씨 모친상=12일 7시5분 서울성모병원. 발인 15일 8시 02-258-5940

△김용식씨 별세, 김중곤르노삼성자동차강남지점파트장 부친상=11일 20시4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7시 02-3010-2263

△김종구씨 별세, 김신우구미김신우내과의원원장·성우금감원은행리스크업무실팀장 부친상=12일 오후 대구 파티마병원. 발인 14일 6시 053-958-9000

△송자의씨 별세, 이홍재전서울진선여중 교장·영서울아산병원 진료지원팀장·영재대한의사협회의협신문편집팀장 모친상=12일 9시30분 서울아산병원. 14일 7시 02-3010-2295

△윤옥숙씨 별세, 정연욱동아일보정치부장 모친상, 박미경유니코써어치상무 시모상=11일 11시 신촌세브란스. 발인 14일 8시 02-2227-7500

△이정승씨 별세, 이동원한화건설감사팀장 부친상=12일 0시55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6시 02-3010-2291